

경인일보(96년~현재)

인력난·재취업 두마리 토끼 수원상의, 인건비 지원 사업

‘시니어 인턴십’ 참여기업 모집

수원상공회의소가 중장년 인력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시니어 재취업 확대에 나선다.

19일 수원상공회의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

‘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(구 시니어 인턴십)’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.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원상공회의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.

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(1966년생 및 이전 출생자)을 신규 채용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다. 참여 기업은 1인당 최대 2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80만원의 장기근속 지원금이 추가로 지

급된다.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근속 지원금 수령 절차가 3회 지급으로 간소화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
수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유형은 ‘일반형’으로 기업이 시니어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해 3개월간 현장실습을 진행한 뒤 계속 고용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. 원칙적으로는 채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만 올해 1월 입사자에 한해 채용 후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
/김지원기자 zone@kyeongin.com